불자 세상보기

이학송
의정부 광동고 교장

다음세대 위해 투자하는 교육 필요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행복할까? 이 물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화두이다. 최근 국감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신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놀이 문화가 사라지고 학습 환경이 실내중심으로 바뀌면서 '약골 청소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청소년 자살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고, 청소년 흡연율의 증가는 점점 저학년으로 확산되고 있다. 매년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늘어나 2008년에는 무려 7만 2000명을 넘어 섰다. 이외에도 게임중독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 가정환경으로 결식하는 학생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지덕체(智德體)를 강조하던 교육 이념이 활발하던 때에는 적어도 교육의 방향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하지만 요즈음 교육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입 수능시험 결과와 소위 명문대학교 진학률 등의 잣대로 학교 평가 등을 다해버리는 어리석음을 함부로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옛말도 있듯이 교육의 본질은 다양성을 담아내고 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 덕성(德性) 등이 청소년시기에 잘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중·고교 교육과정은 이런 점을 감안해 다양하게 편성돼 있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 성적 위주로 집중되고 있고 기타의 고려 요소는 상당히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특목고인 외국어고나 과학고는 이름 그대로 외국어와 과학 분야에 대한 특수 교육을 수행하는 곳이지만 현실은 어떤가?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도구일 뿐 본질적 가치에 얼마나 충실한가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렇게 선망하던 외국어고에 진학해서 스스로 자퇴한 학생이 지난 5년 동안 전체 외고 학생의 2%에 달하는 1900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온갖 노력을 다해 들어간 외고에서 왜 자퇴를 하는 것일까?

주요 언론에서 습관적으로 강남 교육특구니 명문학교 진학률이 아파트 가격 형성에 절대적이니 하는 등의 표현을 하고 좋은 학교, 나쁜 학교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현실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도시 중심의 평준화 지역과 기타 지역의 비평준화 지역이 있고 도시와 농촌이 환경 차이가 매우 크다. 대도시 내에서도 경제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학업 성적과 대학진학률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다. 거시적 관점과 여유를 가지고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자. 지덕체가 조화이룬 민주 시민 양성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가자. 고졸이나 대졸이나 스스럼없는 선진 사회처럼 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체면과 명분을 앞세운 조급한 결과주의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지식인층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解弛)가 심각한 것도 지나친 성과주의가 가져온 결과라고 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잊지 말자. 또한 극소수 상위권만 부각시키는 폐단을 버리고 전체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올바른 교육관이 논의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근간에 편견을 버리고 공교육의 틀 속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은 장애우 교육이 좋은 사례이다. 배려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한 바로 눈앞의 성과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교육철학이 수용되는 사회의 성숙을 기다려본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조용한 선거의 함정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가 자승 스님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당초 출마를 검토하거나 의사를 밝혔던 스님들이 후보등록을 하지 않음으로 대세는 자승 스님으로 굳어진 형국이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경합 구도가 아니어서 선거정국이 조용하다는데 무게를 두는 관점이다. 1998년의 조계종 사태는 선거를 둘러싸고 발발했었다. 이후 대다수 불자들이 조계종 선거에서 불협화음이 표출되어 망신스러운 일이 생길까 조바심을 쳐온 게 사실이다. 때문에 경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선거는 "조용해서 좋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선거가 지나치게 사전 합의에 의존되어 '야합' 냄새가 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왕 치르는 선거라면 건전한 토론을 통해 종단 비전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이 올바른 선거문화라는 것이다.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드러내 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후보자 검증 문제를 주문했던 측에서 주장하는 청정성 문제와 특정후보의 자격을 두고 사회법에 제소하는 등 잡음은 여전하다.

공개적인 종책토론 한 번 없이 치러지는 선거를 바라보는 불자들의 시각이 양분되고 있다는 것은 대세론을 만들어 낸 후보에게 보다 겸허하고 공정한 행동을 주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조용한 선거'와 '야합의 냄새'는 현실이다. 문제는 당선자의 행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자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최근 불교계에 아주 의미 있는 단체가 창립됐다. 신행 현장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신행을 하고 문화 포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온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자비를 나누는 수레꾼' 모임이다. 소설가 남지심 선생과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김재영 청보리회 법사가 공동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말로 하던 불교를 행동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우선 목적 사업으로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힌 이 모임은 문을 개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본지가 이 모임을 주목하는 것은 실천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모임의 창립을 이끌어 온 면면들은 불교계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낸 중년 이상의 재가불자들이다. 어느 모임에 가도 존경받을 인사들이 손수 모임을 만들어 남을 위한 삶을 새롭게 서원했다니 귀감이 될 일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오랜 세월동안 불교 활동을 하면서 적지 않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스스로 삶을 돌이켜 보고 '누구를 위해 꾸준하게 도움이 되는 일은 얼마나 했던가?'를 반추한데서 모임이 시작됐다니 가슴 뭉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성인들의 면모는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켜 부단히 실천에 옮기는 것일 터이다. 이 모임을 결성한 인사들이야말로 지성인 불교운동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디 모임이 활성화 되어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지구촌 곳곳에 보살행이 넘쳐나길 기원한다.

현불만평

박구원

버스는 달리고 싶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결실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

10월의 테마-결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프로야구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사람들은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선수나 팀은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준비하고 최선의 경기를 다짐하지만 승패는 의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응원하던 사람들도 희비가 달라진다.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상(常)이 아닌 무상(無常)이라 해본다.

합격이라는 결과를 위해 한 해 혹은 여러 해 준비했던 시험이지만, 반드시 통과하지는 않는다. '변수'라는 것이 있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좋은 결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과가 달라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덧없음'이라는 무상의 뜻을 떠올리지 못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이다. 이것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인과를 다르게 보는 보살의 안목이 필요하다. 부처님 말씀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생들이 상상하거나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굳이 삼법인을 말하지 않더라도 덧없이 변화하는 이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중생들의 내면에 잠재한 탐심은 결과에 집착하기에 세상은 고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유마거사는 문병하러 온 석존의 제자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소승적 생각을 벗어나라고. <무문관> 내용에서 운문 스님은 생사에 얽매여 있는 대중들을 향해 고양이를 두 동강 내어 보이는 시범을 했다. 천편일률적 사고와 생활을 질타한 것이다. <법화경>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석존은 태자로 있던 카필라성을 나와 가야성 가까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한 것은 방편이었음을 선언한다. 땅 속에서 솟아오른 지용보살들도 과거 자신이 제도했다고 하여 영산 대중들을 놀라게 하였다. 멸도라는 말에 얽매이지말고, 영원한 법신을 믿으라는 발상의 전환을 가르쳤다.

발상의 전환은 <반야심경>에서도 여실히 보여준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인 오온설, 사성제설, 12연기설, 12처설 등을 낱말풀이와 같이 알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無)'로써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 해야 함을 강조한다. '무'가 갖는 의미는 관행적, 교과서적 시각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를 아는 지혜를 갖추라는 말이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혹은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가 뜻하는 것은 모두 명확한 결과를 가리킨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살이에서 명확하지 않은 결과들이 더욱 많다. 그래서 세상이 고해의 예토로 보이는 것이다. 같은 인과를 두고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과 성인의 경지인 불보살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중생이 물건과 결과에 집착할 때, 불보살은 법공(法空)임을 본다. 그래서 보살은 고에서 벗어났으며, 두려움이 없고,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야심경>은 설한다. 삼세의 부처님들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에 위없는 보리를 얻는다고 하였다.

결실의 계절에 중생의 집착이 아닌 보살의 무기인 공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최동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동대산 진흥사
• 주 지 : 현종 (이종희)
• 주 소 : 경북 청송군 부동면 항리 32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3년 10월 14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달마정사 (서울포교원 달마선원)
• 주 지 : 명석 (김대식)
• 주 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서미1리 760-28번지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삼광사
• 법 명 : 삼광 (안진호)
• 주 소 : 경기 파주군 문산읍 선유리 464-10
• 사 찰 명 : 도원정사
• 법 명 : 도원(안규갑)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2-10, 464-8, 464-12
• 사 찰 명 : 청룡사
• 법 명 : 향운(안정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9-19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운주사
• 법 명 : 삼 광(안진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10
• 사 찰 명 : 은해사
• 법 명 : 삼 광(안진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10
• 사 찰 명 : 보림사
• 법 명 : 향 운(안정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9-19
• 사 찰 명 : 칠장사
• 법 명 : 향 운(안정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9-19
• 사 찰 명 : 선운사
• 법 명 : 향 운(안정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9-19
• 사 찰 명 : 화엄사
• 법 명 : 설 송(안상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12
• 사 찰 명 : 봉선사
• 법 명 : 대성화(최춘희)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8
• 사 찰 명 : 신흥사
• 법 명 : 도 원(안규갑)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2-10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사)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